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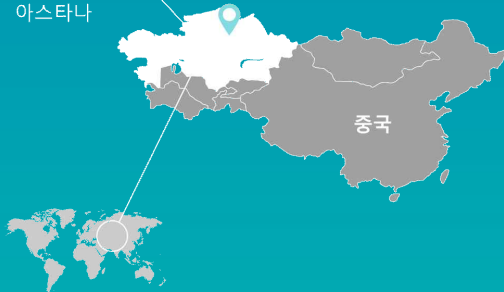
Republic of Kazakhstan

2019년 7월 10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일반개황

<b>면적</b> 2,725천 km <sup>2</sup> 	<b>인구</b> 18백 463만 명 (2018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친러시아, 대중국 협력 확대, 대서방 우호관계 유지 
<b>GDP</b> 1,705억 달러 (2018) 	<b>1인당GDP</b> 9,237 달러 (2018) 	<b>통화단위</b> Tenge 	<b>환율(U\$기준)</b> 344.71 (2018 평균)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지난 30여 년간 집권하였던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초대 대통령이 2019년 3월 사임하였으며 6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의 토카예프 후보가 당선되었음.
- 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누를리 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비즈니스 로드맵 - 2020', '100개의 구체적 방안'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이 기구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일대일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8 수교 (북한과는 1992. 1. 28)

**주요협정** 무역협정('92), 문화협정('95), 투자보장협정('96), 과학기술협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4),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정('06), 원자력협정('10) 등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364,129	532,726	797,818	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수 입	285,295	998,342	1,362,019	원유, 우라늄, 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314건, 2,621,331천 달러

## 우리은행과의 관계

(2019/07/09 현재)

구분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액	대출잔액
수은대출(천달러)	1,564,073	1,517,751		173,514
경협기금(백만원)	16,269	16,140		0

# 정량평가 경제지표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카자흐스탄

Republic of Kazakhstan

종전 평가일 : 2018.03.23

분야		평가요소	2014	2015	2016	2017	2018
I. 국내경제 (50%)		1인당 GDP(달러)	12,712	10,435	7,658	8,953	9,237
		소비자물가상승률(%)	6.7	6.7	14.6	7.4	6.0
		재정수지/GDP(%)	2.5	-6.3	-5.3	-4.4	0.5
		GDP 규모 (억 달러)	2,214	1,844	1,373	1,629	1,705
		실질GDP 성장률(%)	4.2	1.2	1.1	4.1	4.1
		국내총투자/GDP(%)	25.8	27.9	27.8	26.6	26.1
II. 국제경제 (50%)	대외거래 (2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3.1	4.1	4.5	3.4	2.7
		경상수지/GDP(%)	2.8	-3.3	-5.9	-3.1	-0.0
		총수출증가율(%)	-5.4	-43.0	-17.7	28.4	23.6
		총수출/GDP(%)	39.9	28.9	31.9	34.5	40.8
	외채상환능력 (25%)	총외채잔액/총수출(%)	178.5	288.1	373.4	297.7	256.4
		D.S.R.(%)	18.2	37.5	38.9	33.9	32.9
		총외채잔액/GDP(%)	71.2	83.2	119.2	102.8	104.5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45.6	31.6	32.4	42.7	46.8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4.2	1.2	1.1	4.1	4.1
소비자물가상승률	6.7	6.7	14.6	7.4	6.0
재정수지/GDP	2.5	-6.3	-5.3	-4.4	0.5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상품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 지속

-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원유 수출액 증가로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와 같은 4.1%를 기록함.
- 2015년과 2016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원유수출액이 감소하여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2017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
- 2019년에는 유가가 다소 하락함에 따라 성장률이 3.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국영에너지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전환

- 2015~17년 낮은 국제유가 지속에 따른 국영에너지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되었음.
- 2017년에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제금융 지출 등으로 GDP 대비 -4.4%의 적자를 기록함.
- 2018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국영에너지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5%의 흑자를 회복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과 이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 2016년 텅게화 환율 상승에 따른 상품 수입가격 상승으로 14.6%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 추세임.
- 2018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의 7.4%보다 하락한 6.0%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5.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6년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하락과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17%(2016.03) → 15%(2016.05) → 12%(2016.11) → 9.5%(2018.03) → 9%(2018.04)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	6,114	-6,012	-8,132	-5,102	-52
경상수지/GDP	2.8	-3.3	-5.9	-3.1	-0.0
상품수지	35,009	11,627	9,253	16,728	26,359
상품수출	79,073	44,826	35,486	47,301	59,630
상품수입	44,064	33,199	26,232	30,573	33,271
외환보유액	21,309	19,791	19,361	17,469	15,772
총외채	157,562	153,422	163,632	167,485	178,241
총외채잔액/GDP	71.2	83.2	119.2	102.8	104.5
D.S.R.	18.2	37.5	38.9	33.9	32.9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 증가 및 경상수지 적자 규모 크게 감소

- 2016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출액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하락 추세임.
- 상품수출액은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33.3%,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크게 개선됨. (2016년 -5.9% ⇒ 2017년 -3.1% ⇒ 2018년 -0.0%)

## 외채상환능력

전반적으로 외채상환능력이 취약하나, 2016년 이후 GDP 규모 및 수출액의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비중과 D.S.R.이 감소하는 등 개선 추세

- 2016년 이후 GDP 규모와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16년 119.2%에서 2018년 104.5%로 하락하였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2016년의 373.5%에서 2018년에는 256.4%로 감소함.
- D.S.R.은 수출액 증가에 따라 2016년 38.9%에서 2017년 33.9%, 2018년 32.9%로 하락하였음.

## 대규모의 국부펀드 보유는 긍정적인 요소

- 2018년 말 기준 약 607억 달러의 대규모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 수출 소득으로 조성되는 국부펀드 규모는 2014년 이후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 국부펀드 규모(억 달러): 732(2014년) → 635(2015년) → 612(2016년) → 583(2017년) → 607(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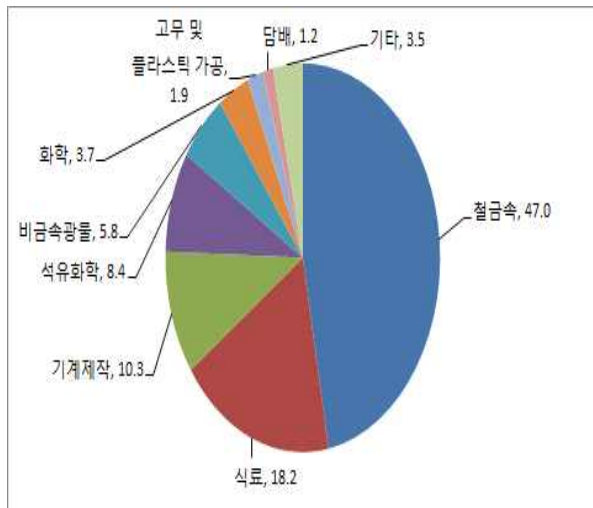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산업다변화 부진으로 에너지 및 광물 부문이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

- 원유, 천연가스, 광물 부문이 산업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외경제환경 변동에 대하여 경제의 취약성이 높음.
- 광물·에너지 부문이 GDP 생산의 20%,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변동에 매우 취약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자원·에너지 이외의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철금속, 비금속광물 등 광물가공업의 비중이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8.4%, 화학 3.7% 등으로 에너지 연관 부문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조업 부문별 비중(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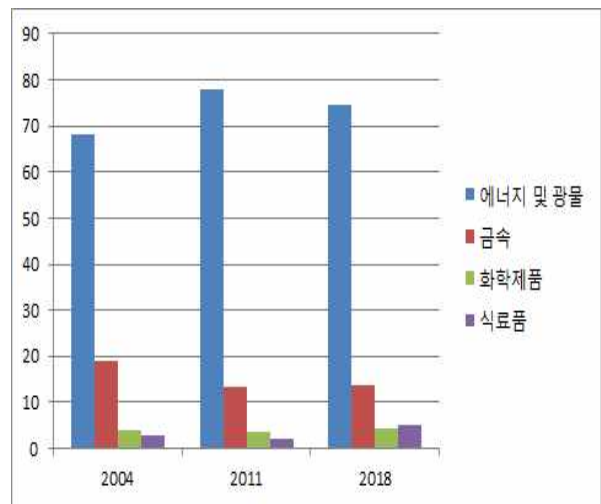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주요 수출품목(2018년)

(단위: %)



자료: EIU



## 구조적취약성

## 금융 부문의 취약성 지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은행 간 합병 등이 진행되었음.
- 2018년 7월 자산규모 1위 은행인 할릭은행(Halyk Bank)이 2위 은행인 카즈코메르츠은행(Kazkommertsbank) 지분 96.8%를 인수하여 합병하였으며, 합병된 은행은 자산규모 230억 달러로 카자흐스탄 전체 은행 자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카자흐스탄 전체 은행 자산 가운데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3.2%에 달하고 있으며, 이 5대 은행은 대출의 62.1%, 소매예금의 66.3%를 기록하고 있음.
- 2016년 12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카즈코메르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로 약 12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정부에서 약 65억 달러의 자금을 부실채권기금에 지원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7년 9.3%에 달하던 무수익여신(NPL: non-performing loans)의 비중은 2019년 8.6%로 하락하였음.
- 과거 2000년대의 경제호황기에 카자흐스탄의 은행들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높은 이자율로 대출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실이 발생하였음.

## 성장잠재력

### 다자개발은행과 중국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국제 운송물류 인프라 개선

- ADB, EBRD, WB 등의 운송물류 프로젝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국제 운송물류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주요 회랑인 '신유라시아 대륙교량'이 통과하는 지역임.
- 카자흐스탄의 주요 일대일로 운송물류 프로젝트로 서유럽-서중국 도로와 호르고스 물류 특구 등이 추진되었음.

###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운송망



자료: Xinhua.

### 에너지 부문의 높은 발전 가능성

- 2018년 말 기준 카자흐스탄의 원유 매장량은 약 300억 배럴로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1.7%(세계 12위)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규모임.
- 현재 텡기즈, 카라차가낙, 카샤간 등 3대 유전이 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원유 생산 규모는 연 9,120만 톤(일평균 192.7만 배럴)이며, 새로운 유전에서 생산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2008년 7,070만 톤(일평균 148.5만 배럴) → 2014년 8,110만 톤(일평균 171.0만 배럴) → 2018년 9,120만 톤(일평균 192.7만 배럴))
- 중국으로 연결된 송유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수출이 다변화되었으며,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카스피해의 아티라우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연결되는 2,800km에 달하는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음.

## 정책성과

###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4위 기록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카자흐스탄은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함.
- 이는 전년도에 비해 4단계 상승한 것이며,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임. 러시아는 45위, 우크라이나는 54위를 기록함.
- 세부 항목에서는 정부의 효율성에서 21위, 기업의 효율성에서 29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인프라에서는 43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기술 인프라는 51위, 보건 및 환경 인프라는 57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음.

### 중소기업 육성 및 ICT 부문 발전 정책 추진

- 제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비즈니스 로드맵-2020, 누를리 줄 정책, 100개의 구체적 방안 등이 있음. 비자원 부문의 발전을 위해 2010년 채택된 '비즈니스 로드맵-2020'은 2019년에 2025년으로 연장되었음.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및 ICT 부문 육성정책

프로그램	추진시기	핵심 정책	주요 내용
누를리 줄	2014년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산업 인프라 발전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정책(2050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50%로 확대) - 기계제작 부문 육성 - 기업의 수출 지원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100개의 구체적 방안	2015년	투자환경 개선과 국제협력, 혁신 발전 등	- 비원자재 부문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7년 12월	- 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실크로드 - 인적자본 개발 - 혁신생태계 조성	- 2022년까지 ICT 활용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 49.8% 향상 - 수출지향적 IT 기업 육성, 경제특구 내 혁신기술 파크 개발

- 또한 정부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등 ICT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8년 50%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용 고객은 2배 증가한 230만 명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7억 달러의 규모를 기록함.
- 또한 온라인 상점은 1,700여개가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68%는 상품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책성과

###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추진

- 2019년 5월 알마티 시 인근에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이 착공되었음.
- 현대자동차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시 인근에 자동차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2020년 말 공장을 완공하고, 2021년 5월부터 연간 1만 5천여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향후 생산량을 연 4만 5천 대까지 점차 늘릴 계획임.
- 기존에 현대자동차 수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아스타나 모터스'사가 6,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이 조립 공장을 운영하게 되며, '아스타나 모터스'사는 향후 CIS 국가들로의 수출도 고려하고 있음.
- 현재 두 곳의 자동차 회사에서 각각 현대, 기아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 북부의 코스타나이(Kostanay) 지역의 현지 공장에서 현대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동부의 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 공장에서는 기아자동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음. 현대자동차는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에서 3위의 판매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경제특구 활성화 추진

- 카자흐스탄 전역에 부문별 특성에 따른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12개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중점 부문에 따라 산업, 서비스, 기술 특구 및 혼합 특구로 구분됨.
- 산업특구로는 악타우, 온투스틱, NIPT(Nation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park), 파블로다르, 사리아르카, 타라스 등이 있으며, 서비스특구에는 호르고스-동방의 문 특구가 대표적이고, 기술특구는 IT 파크(Park of Innovative Technologies) 특구가 대표적임. 또한 산업 및 서비스 혼합 특구로는 아스타나 신도시, 아스타나 테크노폴리스, 투르키스탄 등이 있음.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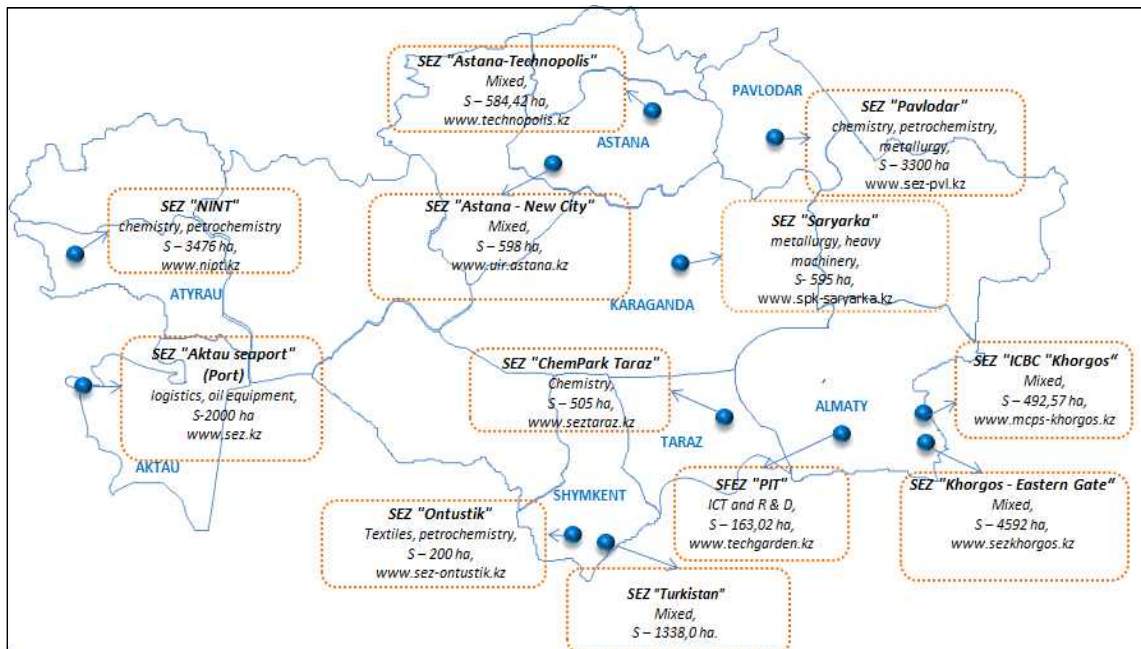
명칭	특구 유형	주요 부문	운영시기	면적(헥타르)	운영 기업 수 (입주 준비)
아스타나 신도시	산업, 서비스	건설, 산업 등	2001.06~2027.06	598	41(25)
아스타나 테크노폴리스	산업, 서비스	혁신, 첨단기술	2017.11~2042.12	584	(4)
악타우	산업	물류, 석유설비	2002.04~2028.01	2,000	16(19)
IT 파크	기술	IT	2003.08~2028.01	163	79(38)
온투스틱	산업	섬유, 석유화학	2005.07~2030.07	200	9(8)
NIPT(아티라우)	산업	석유화학	2007.12~2032.12	3,476	1(3)
사리아르카(카라간다)	산업	철광석, 금속	2011.11~2036.12	534.9	6(5)
파블로다르	산업	석유화학, 화학, 금속	2011.11~2036.12	3,300	6(6)
호르고스-동쪽 문	서비스	물류	2011.11~2035.12	4,592	1(4)
호르고스	산업, 서비스	수출산업, 교역	2017~2041	493	-
타라스 화학 단지	산업	화학	2012.11~2037.01	505	0(7)
투르키스탄	산업, 서비스	도시 발전, 관광	2018.10~2043.12	1,338	-

자료: <https://invest.gov.kz>

## 정책성과

- 대표적인 경제특구로는 아스타나 신도시, PIT, 아티라우, 호르고스 등이 있음.
- 아스타나 신도시 특구는 아스타나의 건설과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병원, 학교, 대학교, 스포츠 시설, 사무실, 주택 등 도시 인프라 건설과 금속, 비철금속, 화학, 항공기 등의 중화학 공업과 전자제품, 식음료, 가구 등 소비재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IT 파크 경제특구는 카자흐스탄 최대의 도시인 알마티 근교의 알라타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IT 산업에 특화된 특구로 IT 및 첨단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악타우 경제특구는 카스피해 연안의 에너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망기스타우 지역에 위치하여 원유 및 광물 채굴과 석유화학, 광물가공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호르고스-동방의 문' 물류특구와 호르고스 산업특구는 중국과의 국경 인근 지역인 호르고스에 중국과 연계하여 물류 특구를 설립함과 동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위치



자료: <https://invest.gov.kz>

## 정치동향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선출

- 2019년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6월 선거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선출됨.
- 구소련 시기인 1989년부터 30년 간 집권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임하였음. 사임의 배경으로는 건강 악화, 장기집권과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 가능성에 따른 '명예로운 퇴진' 등이 추정되고 있음.
- 6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누르오탄당 후보로 출마한 토카예프 대통령이 70.7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관 출신으로 외무부 장관, 총리, 상원의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이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한 바 있음.
-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에게는 엘바시(민족의 지도자)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으며, 당분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자르바예프는 여당인 '누르오탄'당 대표와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헌법위원회 위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퇴임 후에도 행정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 이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향후 토카예프 체제의 불안정이 전망됨.
- 수도인 누르술탄과 알마티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발생하여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지속되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약 1,000여 명이 체포되었음.
-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실질적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음.
- 지난 3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임 직후, 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수도 아스타나의 명칭을 나자르바예프의 이름인 누르술탄으로 변경하여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음.

## 사회동향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음.
- 카자흐스탄은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평가대상 세계 180개국 가운데 124위에 머물러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경제성장률에 따라 국민들의 임금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의 평균 임금은 51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5% 상승하였음.
- 2018년 4분기 업종별 임금에서 금융부문이 전년도 보다 15.4% 증가한 1,058달러, 과학기술부문이 965달러, IT 부문이 759 달러 등을 기록함.
- 2019년의 최저임금은 113.5달러로 이는 전년도의 75.6달러에 비해 1.5배 증가한 금액임.



## 국제관계

### 러시아와는 경제협력 등 긴밀한 관계 지속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음.
-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 지역별로는 EU,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최대 교역국을 기록함. 수출에서는 이탈리아가 19.3%로 가장 비중이 높으나, 수입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38.1%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2018년 카자흐스탄의 국가별 수출입 규모

순위	수출				수입			
	국가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국가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1	이탈리아	11,735	19.3	35.4	러시아	12,392	38.1	6
2	중국	6,273	10.3	8.2	중국	5,384	16.5	15
3	네덜란드	6,190	10.2	30.4	독일	1,646	5.1	11
4	러시아	5,162	8.5	11.3	이탈리아	1,497	4.6	58
5	프랑스	3,839	6.3	34.2	미국	1,289	4.0	4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 추세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일대일로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회랑에 포함되며, 주요 일대일로 프로젝트로는 호르고스 경제특구, 서유럽~서중국 도로 건설 등이 있음.
  - 2019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참석하여 "일대일로와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줄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통물류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중국과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상품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EU와 러시아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며 2018년 대 중국 교역규모는 수입이 전년대비 15%, 수출이 전년대비 10.3% 각각 증가하였음.
  - 카자흐스탄의 원유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로, 프랑스(13%), 독일(12%), 스페인(6%), 루마니아(5) 다음으로 많은 규모에 달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외채의 대부분은 중장기이며,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

- 2018년 9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1억 3,120만 달러, 중장기 16억 6,160만 달러 등이며, 이 가운데 중장기 1억 350만 달러가 연체 중이고, 그 중에서 9,37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9.02)	6등급(2018.01)
Moody's	Baa3(2017.07)	Baa3(2016.04)
Fitch	BBB(2019.3)	BBB(2018.09)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6년 초 카자흐스탄의 경제지표 악화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후, 기존 등급 유지

- 2016년 초 이후, Moody's는 Baa3, Fitch는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와 Fitch는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수출 증가와 에너지 기업으로부터의 세입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음.
- 30년 간 집권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올해 3월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였으며, 6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당 후보로 출마한 토카예프 대통령이 70.7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 대통령 선거 당일 수도와 알마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여 5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선거 이후에도 며칠간 시위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이후 GDP 규모와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 비중,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 등 외채 관련 지표는 다소 개선됨.